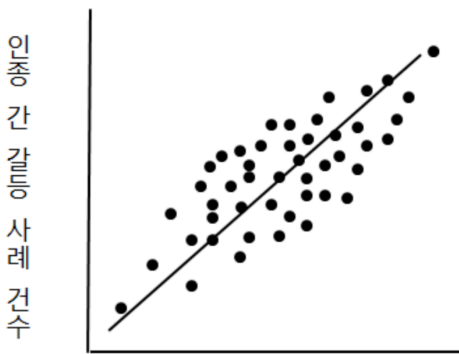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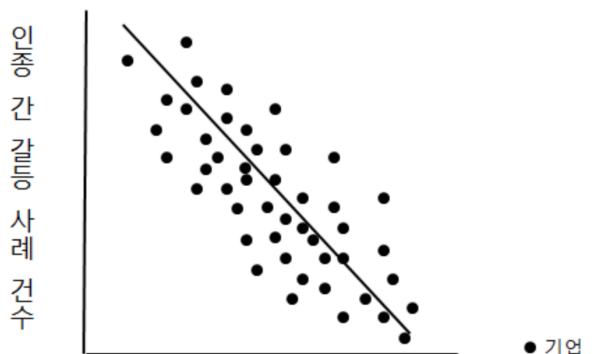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인종 갈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기업별 인종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인종 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 건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한 것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 인종 갈등 발생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의 X축은 기업별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다. 도표의 Y축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각 기업별 인종 갈등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다.

[그림1]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

[그림2]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

제시문 (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안락한 상황에 있는 한,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전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적이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재현될 뿐이다.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이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

어가며 어느 정도는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 받는 자와 처지를 바꾸어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여러 분명한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다.

제시문 (라)

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정을 올려다 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르블롱 씨는 전체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인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르블롱 씨가 지켜온 전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 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 판단(“알제리인 동료 중 한 사람은 대단해요. 아랍인치고는 대단한 사람이예요.”)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인 동료들이 받은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아니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해의 가치(그는 몇 번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말했다.)를 실천하기 위해 르블롱 씨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밥소사..... 음, 정말 끔찍했죠. 왜냐하면, 음, 나는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애들은..... 사내놈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 때부터 진짜 소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

〈문제 1〉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독해

〈문제 2〉를 풀기 위한 제시문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 1〉이 이야기하는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1〉은 (가), (나), (다)를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기를 요구합니다. 〈문제 2〉에서도 제시문들을 독해할 때, ‘차이’와 ‘갈등’이 각 제시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나) - 차이와 갈등에 관한 연구

주체 - 기업 내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

배경 - 직원들이 각자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님

양상 -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많으면 갈등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고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이 많으면 갈등의 발생 빈도는 증가함

결과 -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인종 간 갈등의 원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종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먼저, 제시문 (나)는 ‘차이’와 ‘갈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차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회사의 직원들’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 내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물론, 그냥 ‘직원들’이라고 하고,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는 배경 항목에 ‘직원들의 인종적 배경이 다양함’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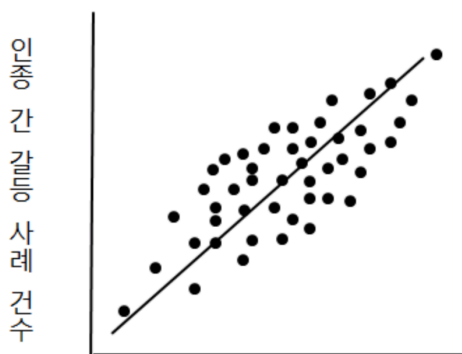
배경 항목에는 ‘차이와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포드합의인문논술자료**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첫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이고, 이런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즉, 인종적 배경의 차이가 인종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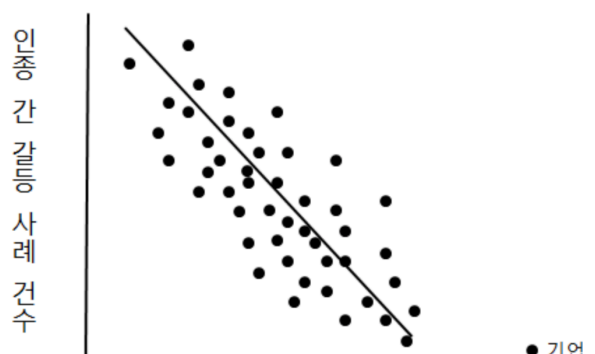
이제 그래프를 볼 차례입니다. 이들의 차이와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

[그림2]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

먼저 [그림 1]은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의 상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이 많을수록, 인종 간 갈등 사례의 건수는 많습니다. 반대로,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이 적을수록, 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도 적습니다.

[그림 2]는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의 상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이 많을수록, 인종 간 갈등 사례의 건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이 적을수록, 인종 간 갈등 사례는 많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를 낮추고,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은 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를 높입니다. 이를 양상에 적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은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종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의 원인으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이라 말할 수 있고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과 항목에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다) - 공감(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주체 - 인간

배경 - 1. 이기적인 본성과 상반되는 원리들이 존재

2.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자신과 타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양상 - 타인이 느끼는 것을 재현하는 상상을 함

결과 - 타인과 같은 것을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음

영향 요소 - 상상으로 형성한 관념의 희미함(공감의 방해 요소), 선명함(공감의 촉진 요소)

제시문 (다)는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차이와 갈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아서, 제시문 독해를 마치기 전에 찾아낸 다른 항목들을 ‘차이’나 ‘갈등’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에서 공감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원리들도 지닌 인간’입니다. 허나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되는 원리를 지님’ 부분을 배경으로 빼서 이해하고 정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들의 공감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배경 항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제시문의 다음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첫째 배경으로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도 이와 상반되는 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둘째 원인을 ‘차이’라는 논제의 키워드를 통해 들여다보면, 결국 타인과 자신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과 타인 사이에는 완전히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정리하여 배경 항목에 ‘자신과 타인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 존재’ 라고 적어둡시다.

이제 양상을 살펴볼 때입니다. 이런 공감은 우리가 타인이 느끼는 것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즉,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상상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공감을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감정이입까지 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부분을 통해 제시문에서 공감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할만한 요소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형성한 관념이 생생할수록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희미할수록 타인과 먼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생한 관념이 **공감의 촉진 요소**, 희미한 관념이 **공감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 제시문은 차이와 공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존재하는 이유로 ‘타인과 근본적 차이’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결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의 결과로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감정 이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는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의 해소 방안 역시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즉, 생생한 관념을 상상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라) -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

주체 - 르블롱 씨 부부

배경 - 알제리인들과의 문화적 차이

양상 - 알제리인들을 존중하려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함

결과 -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신념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죄의식을 느낌)

(라)에는 르블롱 씨 부부가 알제리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제리인들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들의 신념인 관용과 이해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죄의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문의 독해만 하고, 문제 풀이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봅시다.

문항 풀이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항에서는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의 문제점을 짚어내길 요구합니다. (라)를 기준 삼아서 (나), (다)를 비판하라는 비판 논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라)의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이 공통적이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선, (나)와 (라)의 공통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차이와 갈등이 모두 드러납니다. (나)에서의 차이는 ‘인종적 배경의 차이’이고, 갈등은 ‘인종 간 갈등’입니다. (라)에서도 프랑스인인 르블롱 씨 부부는 알제리인들과 인종적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나)는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서 인종 간 갈등을 줄입니다. 하지만 (라)의 르블롱 씨 부부는 냄새와 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했고,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라마단 기간에는 이들의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다)와 (라)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다)와 같이, 르블롱 씨 부부 입장에서 알제리인들은 타인이기에 그들이 겪는 것을 그대로 겪지 못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에서는 타인에 대해 상상하는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합니다만, 프랑스 사람인 르블롱 씨 부부는 알제리인들의 문화와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다)	(라)
차이	인종 간 배경의 차이	타인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차이	프랑스 - 알제리인 간의 인종 간 배경 차이 르블롱 씨 부부 입장에서 알제리인들은 타인이라는 차이
갈등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발생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상상을 통해 희미한 관념을 생성할 때)	다른 냄새, 소음으로 인한 내적 갈등 발생(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갈등 발생) 르블롱 씨 부부가 알제리인들을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하여 내적 갈등 발생
해소 방안	차이를 드러냄으로 갈등 발생 감소	생생한 관념으로 공감, 감정이입	?

이제 (라)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비판할 차례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갈등의 해소 방안 측면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활용하여 비판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하여 인종 간 갈등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라)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즉,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나)의 갈등 해소 방안은 (라)의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기업이었기에 이러한 방법이 통한 것이고, (라)에서는 일상이라 이러한 방법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는 달리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에서는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공감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라)의 르블롱 씨 부부는 그로 인해 오히려 내적 갈등을 겪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에 대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인데, 르블롱 씨 부부가 형성한 관념은 너무나도 희미하여 알제리인들에게 진정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원인을 추론해보자면, 프랑스 문화권에서 살아온 르블롱 씨 부부는 알제리인들의 이슬람 문화권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에, 상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타인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관념은 희미해지고, 공감은 잘못되어 내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예시 답안

(라)의 르블롱 씨 부부는 알제리인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르블롱 씨 부부는 프랑스인으로서 관용과 이해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죄책감까지 겪는다. 프랑스인과 알제리인들의 인종 간 배경의 차이를 드러내는 냄새나 소음 같은 요소들이 르블롱 씨 부부로 하여금 이해의 가치 실현을 방해한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는 이러한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다. (나)는 인종 간 갈등을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라)의 르블롱 씨 부부로 하여금 오히려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 르블롱 씨 부부는 인종 간 차이가 드러나는 냄새나 소음과 같은 요소에서부터 내적 갈등을 느끼며, 알제리인들과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라마단 기간에는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나)처럼 기업에서 가능한 갈등의 해결 방안이지, (라)와 같은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줄어들면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다)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는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더 나아가 감정 이입을 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라)의 르블롱 씨 부부에게 공감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공감을 하려는 시도가 르블롱 씨 부부의 내적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공감은 생생한 관념을 형성할 때에 깊게 이루어지는데, 르블롱 씨 부부는 희미한 관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 문화 속에서 살아온 르블롱 씨 부부는 알제리인들의 이슬람권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타인과의 차이가 극심하면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감이 아닌,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979자)